

추세의 논의는 상황의 개선 여부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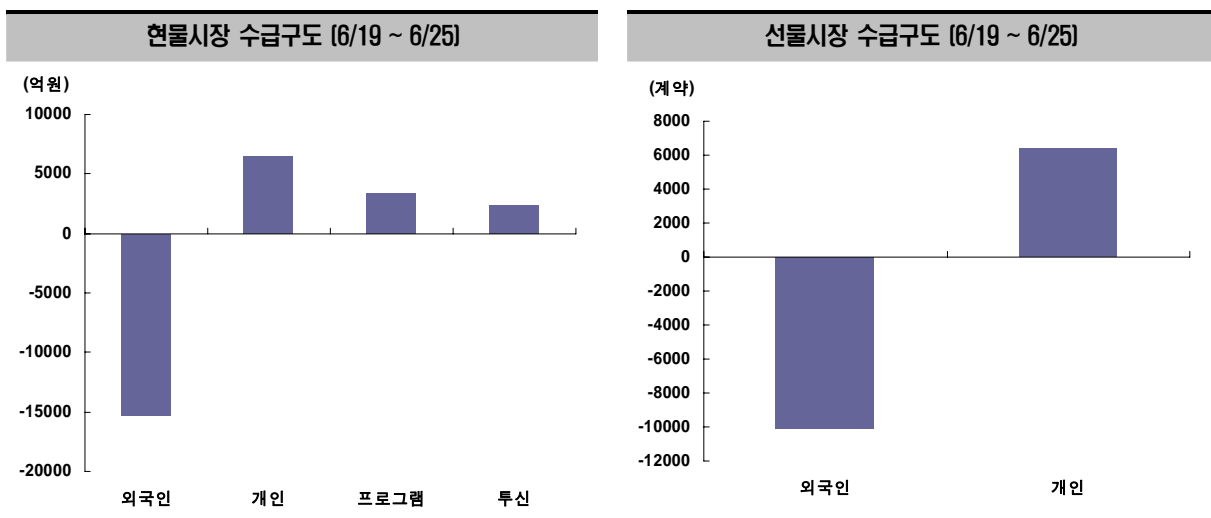
김중현 (02) 3772-3864
jkim@goodi.com

주변 여건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기술적 반등

주식시장이 닷새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더군다나 금주 들어서 KOSPI지수는 사흘 연속으로 장중에 1,700선이 무너지는 취약한 흐름 속에서도 결국 종가에는 1,700선을 지켜내는데 성공함으로써 同지수대에서의 지지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하락리스크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우선 전일의 반등은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다. 최근 국내증시가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나 미국시장의 침체와 같은 외부 악재들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주변여건의 개선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인플레이션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국제유가에 대한 글로벌 공조체제는 각 이해당사자들의 커다란 입장차이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모노라인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이후 신용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긴축 우려감까지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형편은 글로벌 만행님 역할까지 챙길 겨를이 없다. 따라서 일단 시장의 흐름은 단기급락 이후 나올 수 있는 자율반등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 對 외국인의 현/선물 수급구도는 유리할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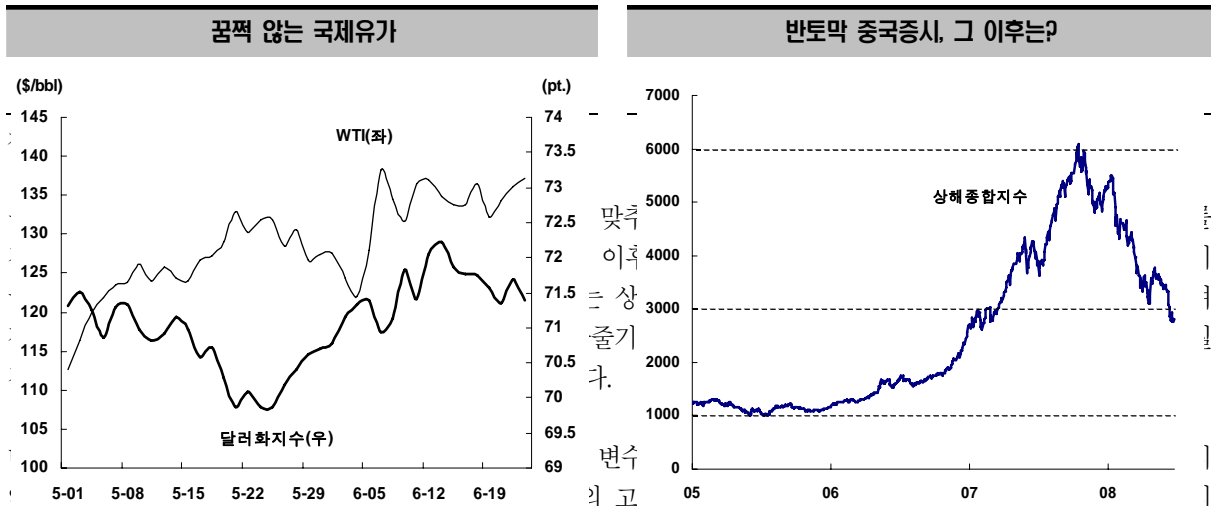
자료: 굿모닝신한증권

별다른 개선의 조짐을 발견할 수 없는 외부여건 뿐만 아니라, 내부 수급동향 역시 반등의 신뢰도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이 전일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신등 국내기관들의 방어적

시각도 여전하며, 개인과 프로그램 매수만이 유일하게 매수세를 유발시키고 있는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수가 연속 하락세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지난 주 목요일 이후 전일까지 닷새 동안에 외국인들은 1.5조원을 순매도(6월 누적으로는 4.2조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각각 6,400억원과 3,400억원의 순매수로 이들 외국인 매물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투신권 역시 2,40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프로그램 매매를 감안하면 오히려 소폭의 매도우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프로그램 매수세를 유발시키고 있는 선물시장에서도 주된 매수주체는 개인들이다. 같은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도 규모가 1만계약을 넘어서고 있는 반면, 개인들은 현물시장과 더불어 선물시장에서도 6,400계약의 매수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현물/선물시장을 통틀어서 “외국인/기관 매도 對 개인 매수” 구도가 진행중이고, 이러한 구도 속에서 나타난 기술적 반등에 커다란 신뢰도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FOMC 이후 : 국제유가와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더불어 아직 개연성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8개월 만에 상해종합지수가 55% 폭락한 중국증시의 최근 반등 조짐이 그나마 얼얼은 투자심리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변수이겠다.

아직까지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당장에 반등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키우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의 짧은 흐름이라는 관점을 유지하며 저가매수 대응은 주변 변수들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 이후로 미루어도 늦지 않겠다.